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재무관리 역량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호용, 이현복

I. 서론

개인의 재무관리는 단기적인 금전의 일상적인 관리 및 지출, 저축 행동을 관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가족의 생활 및 노후 대비까지 재무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재무 설계 및 관리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많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2014)의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금융이해도가 60대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기의 금융교육의 부실로 말미암아 인생 사이클에 맞는 재무 설계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마이너스 청춘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대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15년 신입생을 기준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은 8,15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한 신용정보회사(마이크로 크레딧)의 조사에 따르면 ‘15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월 평균 38만원을 아르바이트로 벌고 39.4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여 생활비 적자를 겪는다고 한다. 또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조사(‘15년)에 따르면 대학생의 월평균 생활비(지출)은 약 66만원에 이르고, 평균 부채규모가 642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 즉, 자력 소득, 자력소득 외 소득 등에 따른 재무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검토하였고, 문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설문문항을 개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재무관리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재무계획 및 재무관리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보통 재무관리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행동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및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이기춘 외, 2009; 정순희, 2003). 김효정(2005)은 재무관리행동이 개인이나 가

계가 장단기적인 금전의 일상적인 관리와 지출, 저축 행동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강이주 등(1999)에 따르면 재무관리를 통해 일생동안의 소비만족 극대화,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사고,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가족 제도의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과 경기침체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재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OECD(2003)에 따르면 역량(Competency)이란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현정(2011)은 역량을 삶의 어떤 맥락에 있어서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내적요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에 대한 교육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이다. 가계의 운영을 체계화 하여 사회의 기반인 소비자 및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소비자 재무 설계사를 제도화하면서 소비자 재무설계를 주축으로 하는 개인 재무 관리 분야의 교과목이 기존의 가정대학이나 생활과학대학내의 소비자학 전공 분야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¹⁾ 국제 재무 설계 표준 위원회(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 따르면 개인 재무설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인의 재무를 둘러싼 현금흐름과 신용과 부채관리 포함, 세금설계, 위험관리, 투자설계, 노후설계, 상속 설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 재무 관리는 예산 수립, 현금관리, 부채관리, 신용관리, 위험관리, 은퇴설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 재무 설계는 재무관리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야로 개인 재무 관리의 하위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개인의 재무관리는 금융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행태를 보았다. 개인의 재무관리는 단기적인 금전의 일상적인 관리 및 지출, 저축 행동을 관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가족의 생활 및 노후대비까지 재무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대학생은 용돈을 받아서 학습에 필요한 문구류나 부수적인 물품만 구입하고 부모님이 생활용품을 제공해주었던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스스로도 돈을 벌거나 부모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소비지출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김경자(2003)에 따르면, 이시기에 형성된 소비지출의 패턴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비슷한 연령층이나 전후의 연령층에게 소비 준거집단으로서 또는 소비모델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²⁾

재무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Joo et al(2003)은 신용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배경환경 요소, 심리적 특징이 어떤 영향

1) 최현자(2010)

2) 김효정(2005)

을 주는지 분석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신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신(2005)은 학년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합리성이 높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동거하는 집단보다 신용카드 합리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창미·김영신(2005)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계소득과 용돈의 크기가 현금서비스의 이용 빈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김효정(2005)은 대학생의 학년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합리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차경욱(2007)은 재무관리행동을 요인분석 후 유사한 재무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분석 한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이 미래 계획형, 적극적 관리형과 현재지향형이 높으며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합리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가구주가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지향형에, 고졸인 경우 미래 계획형에, 2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무관리행태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기존연구들은 가계소득, 재무지식, 재무교육 경험 유무 등을 유의한 변수로 들었으며 대학생의 경우 용돈크기, 아르바이트 유무, 신용카드 소유 여부 등이 추가적인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³⁾ 김창미, 김영신(2005)은 대학생 대상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차경욱(2007)도 대학생 대상연구에서 주식, 펀드 등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 선호하는 적극적 관리형 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유형보다 가계소득이 높고 용돈의 액수도 가장 크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용돈액수 변수는 많은 연구들에서 용돈이 적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미래 계획형과 적극적 관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⁴⁾ 그리고 재무교육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재무교육의 실시가 합리적인 재무행동에 정적인 변인이라고 파악된다.⁵⁾ 안창희(2006)은 재무교육을 참여할수록, 재무교육시간이 많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한다고 하였다. 차경욱(2007)은 학교나 금융기관, 기타 기관에서 재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합리적 관리형이나 적극적 관리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으며 소득과 지출관리, 투자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된 재무교육의 경험이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유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낙관적 소비자는 내구재 구입과 저축을 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비관적 소비자는 내구재 소비가 적고 저축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 및 저축행동이 개인의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⁶⁾ 김효정(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에 대한 태도, 인식한 태도, 계획적인 소비태도와 재무관리행동의 합리성이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3) 김효정(2005)

4) 김창미·김영신(2005), 홍은실·황덕순;(2002), 차경욱(2007) 등

5) Garman et al.(1999), Berheim & Garrett(2003), 김창미·김영신(2005), 김효정(2005c), 김영신(2005), 안창희(2006) 등

6) Kotona(1974)

고보선 외(1997)는 비취업주부의 경우 내적통제력이 강할수록 가계재무수행이 높으며 주부의 경우 재정상태의 변화 의도가 적을수록 가계재무수행수준이 높았다. 허경옥 외(1997)는 돈을 성공 척도로 여기는 집단은 은행예금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고 계, 사채와 같은 사금융 이용률이 가장 낮아 안전성을 지향하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은 주식과 사금융 보유율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고 하였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의 주체로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주부와 교육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을 학습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 그러나 20대에 분포하고 있어 용돈을 단순히 받아쓰던 중·고등학생 시기를 벗어나 자신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부모의 간섭 등 외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 소비에 방향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설문문항을 개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수준과 재무관리 역량 측면에서 진행한다. 먼저 경제적 수준은 대학생 개인 자력(직장,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인(월 평균) 소득과 가계 등의 지원(용돈, 장학금 등)을 받아 획득한 소득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귀하의 경제적인 수준은 5점 만점에서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도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은 총 소득(자력소득+지원받은 소득), 자력 소득, 지원받은 소득, 주관적 소득의 4가지 분류 하에 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각각 상·중·하로 구분하여 재무관리 실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재무관리 역량을 측정하였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는 기업에게 있어 마케팅, 회계, 인사, 생산과 함께 수평적 관리기능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의 하나로, 특정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이의 사용과 관련한 일련의 관리행위를 다루는 학문이다.⁷⁾ 그리고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는 경제주체 중 개인의 재무관리를 다루는 학문영역으로 연구대상이 기업과 개인(개인, 가족, 가계를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것에 재무관리와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개인재무관리와 역량에 대한 개념을 고려해 보건데, 대학생의 재무관리 역량은 대학생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탐색적인 수준으로 관련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다.⁸⁾

7) 강병호, 김석룡, 이종연(1998), 『재무관리론』, 무역경영사, 3쪽 재구성.

8) 김정현·최현자(2012)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은 물론이고 소비자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충

김정현(2011)은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Component) 및 하위영역(Subcategory)으로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을 들고 있다.⁹⁾ 따라서 본 연구도 이를 참조하여 대학생의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을 설정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¹⁰⁾

설문의 문항은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 측정을 위한 3개의 문항 즉, '귀하가 자력(직장,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귀하가 자력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 가족(용돈 등), 학교·정부·사회기관(장학금, 생계보조비, 지원금 등) 등으로부터 받는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귀하의 경제적인 수준은 5점 만점에서 몇 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 재무관리역량 측정을 위한 6개 구성요인 당 3개의 측정문항인 총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¹¹⁾ 그리고 기타 성별, 연령, 가족(부모 등)과 동거여부, 재학 중인 학교 위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전화 및 e-mail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000부를 배포하여 21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210부 중 불성실 응답 등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설문 8부를 제외하고 202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첫째,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둘째,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소득수준에 따른 재무역량의 비교는 총소득, 자력소득, 비자력소득, 주관적인 재무상태를 상, 중, 하 3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재무역량 요인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진행하였다. 분산분석의 사후분석(Post Hoc Multiple Comparisons)은 Equal Variances Assumed Tukey를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50.4%, 여성이 49.6%였으며, 연령대는 만 23세~27세가 42.5%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조사대상자의 60.3%가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약 50%수준이었다. 소득활동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47%였으며, 약

분하지 못하다고 함

9) 김정현(2011)의 연구는 FSA(2005), 공정거래위원회(2008), Parrotta and Johnson(1998), Jump\$tart(2007), 최현자 등(2003)을 참조하여 상기내용으로 종합하고 재분류함

10) 설문문항의 개발은 기존연구들을 참조하여 개발하였으며, 특히 김정현·최현자(2012)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음

11) 개인재무관리 역량의 6가지 구성요인 즉,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에 대한 각각의 지식, 태도, 기능에 대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48%는 소득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02)

변수	특성	빈도	%
성별	남성	102	50.4
	여성	100	49.5
연령	만18~22세	43	21.2
	만23~27세	86	42.5
	만28~32세	70	34.6
	만33세 이상	3	14.8
가족과 동거여부	동거	122	60.3
	비동거(자취, 하숙 등)	80	39.6
재학 중인 학교 위치	수도권(서울, 경기)	99	49.0
	비수도권	103	50.9
소득활동	직장(정규직)	9	4.4
	아르바이트 등(비정규직)	95	47.0
	없음	98	48.5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의 순위별로 상, 중, 하 그룹으로 구분하여하였다. 지역소득의 경우 상, 중, 하의 평균은 각각 31.7만원, 23.4만원, 12.8만원 이었으며, 비자력 소득의 경우 상, 중, 하의 평균은 각각 3.1만원, 16.7만원, 8.2만원이었다. 주관적 경제 소득의 수준에서 상은 4.4%, 중의 응답자는 50.4%, 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5.0% 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소득(n=202)

변수	특성	빈도	%	평균(만원)
자력소득	상(28만원 이상)	67	33.3	31.7
	중(17~28만원)	67	33.3	23.4
	하(0~16만원)	68	33.3	12.8
비자력 소득 (용돈 등)	상(27만원 이상)	67	33.3	30.1
	중(11~26만원)	68	33.3	16.7
	하(0~11만원)	67	33.3	8.2
총 소득	상(54만원 이상)	67	33.3	61.8
	중(27~54만원)	68	33.3	40.1
	하(0~27만원)	67	33.3	20.0
주관적인 경제적 소득 수준	상(5, 6 응답자)	9	4.4	-
	중(3, 4 응답자)	102	50.4	-
	하(1, 2 응답자)	91	45.0	-

2. 분석모형의 적합성 검토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자 반응의 편파성이 있는지 기술 통계값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설문에서 왜도 2이하, 첨도 4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설문문항이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여 응답자들의 반응이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설문문항 반응의 편파성 확인과 함께,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Cronbach's α 값을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설문문항에서 Cronbach's α 값이 0.8이상 나타나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여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¹²⁾ 다음 <표 3>는 설문문항의 기술통계치와 Cronbach's α 값을 정리한 것이다.

12) Nunnally(1978)에 따르면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면 모형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설문문항의 기술통계치와 Cronbach's α 값

요인	측정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	문항제거시 Cronbach's α
수입과 지출관리	1	2.91	0.82	0.69	1.06	0.816	0.791
	2	2.90	0.87	0.46	0.50		0.792
	3	3.00	0.67	0.76	2.09		0.781
신용과 부채관리	1	2.97	0.71	0.69	2.34	0.856	0.758
	2	2.79	0.80	1.25	2.56		0.760
	3	3.10	0.70	0.93	2.13		0.757
저축과 투자	1	3.47	0.70	0.62	0.79	0.794	0.729
	2	3.22	0.90	0.67	0.89		0.754
	3	3.06	0.54	1.07	2.34		0.766
위험관리와 보험	1	3.03	0.65	1.04	2.16	0.847	0.765
	2	3.41	0.84	0.617	1.74		0.761
	3	3.09	0.55	1.02	2.88		0.764
노후설계	1	3.34	0.69	0.63	1.02	0.844	0.762
	2	3.29	0.75	0.61	1.56		0.763
	3	2.99	0.62	1.22	2.19		0.766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1	2.87	0.91	0.65	1.44	0.744	0.728
	2	2.98	0.57	0.62	1.28		0.729
	3	3.02	0.62	0.59	1.47		0.730

이후 이러한 설문문항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요인들로 묶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변수	1	2	3	4	5	6
수입과 지출관리	1	0.756	-0.031	-0.014	0.105	0.316	0.703
	2	0.768	0.116	-0.061	0.129	0.782	0.117
	3	0.788	0.015	-0.023	-0.093	0.090	-0.081
신용과 부채관리	1	0.363	0.717	-0.113	0.013	0.360	-0.088
	2	0.498	0.795	-0.435	0.004	-0.038	0.196
	3	0.190	0.787	0.024	0.154	-0.118	0.158
저축과 투자	1	0.076	0.093	0.872	0.051	-0.051	0.142
	2	-0.165	0.474	0.783	0.450	0.243	0.150
	3	-0.021	0.043	0.708	0.021	-0.104	0.192
위험관리와 보험	1	0.189	0.409	-0.052	0.751	-0.105	0.125
	2	0.002	0.738	0.092	0.740	0.077	-0.056
	3	0.255	0.083	0.154	0.874	-0.026	0.105
노후설계	1	-0.070	0.094	0.602	0.030	0.759	0.003
	2	-0.181	0.542	0.193	0.215	0.776	-0.050
	3	0.022	-0.041	0.113	0.360	0.760	0.170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1	0.150	0.168	-0.089	0.751	0.314	0.812
	2	0.385	-0.019	0.021	0.015	0.036	0.726
	3	0.348	-0.050	-0.082	0.179	0.001	0.707
고유치(eigen value)		7.200	7.433	7.011	7.534	7.211	7.340
분산 설명율(%)		21.731	20.131	19.348	20.380	20.716	21.229
누적분산 설명율(%)		61.739	62.030	59.038	61.471	60.230	61.683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요인의 회전은 직각(Vari-Max)을 사용하였다. 추출의 기준은 고유치가 1 이상이며, 요인의 적재값이 0.5 이상이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각각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짐을 확인하였다. 누적분산 설명율에 있어서도 모두 60%를 넘기고 있어 총 분산에 의한 설명력도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3. 대학생 소득수준에 따른 재무역량 비교

대학생 소득수준에 따른 재무역량의 비교는 총소득, 자력소득, 비자력소득, 주관적인 재무상태를 상, 중, 하 3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재무역량 요인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진행하여 살펴보았다.

1) 총소득 기준

총소득의 경우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소득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수입과 지출관리 역량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용과 부채, 노후설계,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에서도 총소득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총소득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재무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총소득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수입과 지출의 역량과 신용과 부채 차이,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부분 모두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위그룹의 경우 하위그룹과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위그룹에서는 수입과 지출 역량, 신용과 부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표 5> 총소득에 따른 재무관리 역량 분석 결과

소득 구간		수입과 지출 차이	신용과 부채 차이	저축과 투자 차이	위험관리 와 보험 차이	노후설계 차이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차이	재무관리 역량(모든 요인들의 총합) 차이
하	중	0.0842 (0.1074)	-0.1860 (0.0917)	-0.1162 (0.0850)	0.2028 (0.0844)	-0.2270 (0.0784)	-0.2400 (0.0918)	-0.1479 (0.0509)
	상	-0.3100* (0.1067)	-0.2905** (0.0910)	-0.0872 (0.0844)	-0.1899 (0.0838)	-0.2457** (0.0779)	-0.3996*** (0.0911)	-0.2538*** (0.0506)
중	하	-0.0842 (0.1074)	0.1860 (0.0917)	0.1162 (0.0850)	0.2028 (0.0844)	0.2270 (0.0784)	0.2400 (0.0918)	0.1479 (0.0509)
	상	-0.3943*** (0.1063)	-0.1045* (0.0907)	0.0290 (0.0841)	0.0129 (0.0834)	-0.0187 (0.0776)	-0.1596* (0.0908)	-0.1059* (0.0504)
상	하	0.3100* (0.1067)	0.2905** (0.0910)	0.0872* (0.0844)	0.1899 (0.0838)	0.2457** (0.0779)	0.3996*** (0.0911)	0.2538*** (0.0506)
	중	0.3943* (0.1063)	0.1045 (0.0907)	-0.0290 (0.0841)	-0.0129 (0.0834)	0.0187 (0.0776)	0.1596 (0.0908)	0.1059 (0.0504)

주: *p<0.05, ** p<0.01, ***p<0.001

2) 자력소득

자력 소득의 경우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력소득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수입과 지출관리 역량, 저축과 투자의 역량, 노후설계 역량,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역량, 재무관리 역량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력 소득이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차이에서도 수입과 지출 역량, 신용과 부채 역량, 위험관리와 보험역량, 재무관리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력소득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수입과 지출의 역량과 저축과 투자 역량, 노후설계 역량,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력 소득의 중위의 경우 하위그룹과 수입과 지출역량, 신용과 부채 관리 역량, 위험관리와 보험관리역량, 재무관리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상위그룹과도 수입과 지출 역량 재무관리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자력소득에 따른 재무관리 역량 분석 결과

소득 구간		수입과 지출 차이	신용과 부채 차이	저축과 투자 차이	위험관리 와 보험 차이	노후설계 차이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차이	재무관리 역량(모든 요인들의 총합) 차이
하	중	0.3678 (0.1339)	0.3216 (0.1135)	0.0542 (0.0820)	0.2530 (0.1041)	0.1917 (0.0985)	0.2460 (0.1167)	0.2685 (0.0636)
	상	-0.0129* (0.1003)	0.1074 (0.0850)	-0.0496* (0.0856)	0.1169 (0.0780)	-0.0400* (0.0738)	-0.0013* (0.0874)	-0.0467* (0.0476)
중	하	-0.3678* (0.1339)	-0.3216* (0.1135)	-0.0542 (0.0820)	-0.2530* (0.1041)	-0.1917 (0.0985)	-0.2460 (0.1167)	-0.2685*** (0.0636)
	상	-0.3807** (0.1236)	-0.2142 (0.1048)	-0.1038 (0.0878)	-0.1361 (0.0962)	-0.1517 (0.0909)	-0.2447 (0.1078)	-0.2218*** (0.0587)
상	하	0.0129* (0.1003)	-0.1074 (0.0850)	0.0496* (0.0856)	-0.1169 (0.0780)	0.0400** (0.0738)	0.0013* (0.0874)	0.0467* (0.0476)
	중	0.3807** (0.1236)	0.2142 (0.1048)	0.1038 (0.0878)	0.1361 (0.0962)	0.1517 (0.0909)	0.2447 (0.1078)	0.2218*** (0.0587)

3) 비자력소득

비자력 소득의 경우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자력 소득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수입과 지출관리 역량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에서도 비자력 소득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자발력 소득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수입과 지출의 역량과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력 소득이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위그룹의 경우 하위그룹과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위그룹에서는 수입과 지출 역량, 재무관리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표 7> 수입과 지출관리 ANOVA 분석 결과

소득 구간		수입과 지출 차이	신용과 부채 차이	저축과 투자 차이	위험관리 와 보험 차이	노후설계 차이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차이	재무관리 역량(모든 요인들의 총합) 차이
하	중	0.1220 (0.1029)	-0.0395 (0.0893)	0.2309 (0.1037)	-0.0622 (0.0823)	-0.0049 (0.0773)	-0.031 (0.0910)	0.0065 (0.0502)
	상	-0.3289** (0.1075)	-0.2119 (0.0933)	0.0274 (0.0777)	-0.1166 (0.0860)	-0.1178 (0.0807)	-0.252* (0.0950)	-0.1795** (0.0524)
중	하	-0.1220 (0.1029)	0.0395 (0.0893)	-0.2309 (0.1037)	0.0622 (0.0823)	0.0049 (0.0773)	0.031 (0.0910)	-0.0065 (0.0502)
	상	-0.4510*** (0.1102)	-0.1724 (0.0956)	-0.2035 (0.0958)	-0.0544 (0.0881)	-0.1129 (0.0827)	-0.221 (0.0970)	-0.1860** (0.0537)
상	하	0.3289** (0.1075)	0.2119 (0.0933)	-0.0274 (0.0777)	0.1166 (0.0860)	0.1178 (0.0807)	0.252* (0.0950)	0.1795** (0.0524)
	중	0.4510*** (0.1102)	0.1724 (0.0956)	0.2035 (0.0958)	0.0544 (0.0881)	0.1129 (0.0827)	0.221 (0.0970)	0.1860** (0.0537)

4) 주관적인 재무상태

주관적인 재무상태의 경우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재무상태가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수입과 지출관리 역량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용과 부채,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에서도 주관적인 재무상태가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인 재무상태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수입과 지출의 역량과 신용과 부채 차이, 위험관리와 보험, 노후설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부분 모두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위그룹의 경우 하위그룹과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위그룹에서는 수입과 지출 역량, 신용과 부채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표 8> 수입과 지출관리 ANOVA 분석 결과

소득 구간		수입과 지출 차이	신용과 부채 차이	저축과 투자 차이	위험관리와 보험 차이	노후설계 차이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차이	재무관리 역량(모든 요인들의 총합) 차이
하	중	0.1392 (0.1034)	-0.0376 (0.0914)	-0.0031 (0.0852)	-0.0902 (0.0841)	-0.1504 (0.0797)	-0.145 (0.0930)	-0.0478 (0.0496)
	상	-0.4302*** (0.1047)	-0.3055** (0.0926)	-0.1331 (0.0863)	-0.2693** (0.0852)	-0.2213* (0.0807)	-0.373*** (0.0940)	-0.2887*** (0.0503)
중	하	-0.1392 (0.1034)	0.0376 (0.0914)	0.0031 (0.0852)	0.0902 (0.0841)	0.1504 (0.0797)	0.145 (0.0930)	0.0478 (0.0496)
	상	-0.5694*** (0.0996)	-0.2678** (0.0881)	-0.1300 (0.0821)	-0.1791 (0.0810)	-0.0709 (0.0768)	-0.228* (0.0900)	-0.2409*** (0.0478)
상	하	0.4302*** (0.1047)	0.3055** (0.0926)	0.1331 (0.0863)	0.2693** (0.0852)	0.2213* (0.0807)	0.373*** (0.0940)	0.2887*** (0.0503)
	중	0.5694*** (0.0996)	0.2678** (0.0881)	0.1300 (0.0821)	0.1791 (0.0810)	0.0709 (0.0768)	0.228* (0.0900)	0.2409*** (0.0478)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시기의 재무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의 재무관리 정책마련 및 교육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학생(202명)의 경제적 수준과 재무관리 역량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소득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 수입과 지출관리 역량, 신용과 부채 관리 측면, 노후설계 측면,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측면, 재무관리 역량에서도 유의하게 높아 소득에 따라 재무관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자력 소득의 경우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서 수입과 지출관리 역량, 저축과 투자의 역량, 노후설계 역량,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역량, 재무관리 역량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자력 소득도 소득수준에 따라 재무관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관적인 재무상태도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 관리, 위험관리와 보험차이, 노후설계 차이,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 재무관리 역량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형태에 따른 소득 수준과 7개 분석 영역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재무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즉,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재무관리의 차이는 결국 소득이 낮은 계층

은 향후 더 소득이 낮아지고, 높은 계층은 향후 더 높아지게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소득계층에 따른 정책 지원과 함께 금감원, 한국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에서의 재무교육이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 수준이 고착화되기 전인 대학생 시절에 대해 재무설계 등 금융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에 대비한 재무설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서면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선택시 금융회사의 마케팅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와 생산활동을 시작하는 20대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및 금전적 재무에 대한 장기 목표 설계, 향후 노후 준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금융교육에 대한 조기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가 실시한 금융이해력 국제비교에서 국제평균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금융행위(습관), 재무에 대한 태도 등 실질적인 교육을 경제활동을 접하게 되는 초등학교 생부터의 맞춤교육을 통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기의 시사점들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양한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인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을 소득 기준으로만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수준은 소득과 함께, 부채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추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무관리 역량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구성요인들을 더욱 발굴되어 추가·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호, 김석룡, 이종연(1998), 『재무관리론』, 무역경영사
- 김미리, 김시월. 2011.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및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2)
- 김영균, 2011 “중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결정요인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성. 2009.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제고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0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7호, 2005
- 박창제, 2008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서울:와우이미지
- 성영애, 2012, “재무교육 및 재무 상담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선호분석”, 소비자학연구 23(2)
- 손주영, 2008 “대학생의 소비자재무지식, 소비자 재무행동, 소비자재무교육 요구도”,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2(1)
- 안창희. 2005. “개인재무교육의 효과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송하. 2013 “청장년층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정운영, 황덕순, 2006. “대학생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 차경옥, 박미연, 김연주. 2008.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6(1)
- 최현자, 2010. “2010년 대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측정 결과”, 금융감독원 연구보고서
- 최현자, 2010.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2000-2009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 하희라. 2014 “20.30대 직장인의 재무성향과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ein. Y. W., De Vaney. S. A. (2001) The effects of credit attitude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edit card and installment debt,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 162-179.
- Joo, S. h., Grable, J. E., and Bagwell, D. C.(2003). Credit Card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7(3), 405-419
- Lea, S. E. G., Webley, P. & Levine, R. M.(1993). The economic psychology of consumer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85-119.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ed). New York :McGraw-Hill.